

“유커 몰려오는데… 전남은 손 놓고 있을건가”

〈중국인 관광객〉

올 720만명 중 전남 16만명에 불과할 듯

3년내 33만명 유치 계획도 예산문제로 난망

김동철의원 국감서 지적

무안공항을 통해 전남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를 찾는 전체 중국인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남도가 중국 전담 여행사 육성, 중국 내 홍보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관광지, 교통수단 등의 하드웨어와 관광 프로그램, 관광통역 등 소프트웨어 모두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6일 오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전남도 국감에서도 이 같은 문제

가 거론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현재까지 중국 정기성 전세기에는 중국 내 심양, 항주, 서주, 성도, 남창, 중경, 남경, 귀양, 정주, 석가장, 영파, 린이 등 12개 도시를 163회 오가며 2만3000명의 중국 관광객을 전남도에 내려놨다. 이는 지난 2013년 2개 도시 148회 왕복(중국 관광객 1만9000명), 지난해 7개 도시 176회 왕복(2만6000명) 등에 비하면 대폭 증가한 수치다. 또 북경, 상해, 천진 등 국제 정기노선을 통해 무안공항을 찾은 중국관광객도 같은 기간까지 5311명으로, 지난 2013년 3335명, 지난해

5165명 등을 벌써 앞섰다. 메르스 여파와 중국 관광객 만족도 하락 등 악영향 속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전국 중국 관광객 수치에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의 ‘2015년 8월 기준 관광동향분석’에서는 올 8월까지 방향의래 관광객 837만4659명 가운데 중국관광객은 377만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 감소했지만, 점차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을 찾는 중 관광객 가운데 전남도를 직접 방문한 비율은 0.75%(2만831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타 지역을 통해 한국을 찾아 전남을 경유하거나 전남도로 진입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치는 제외된 것이다.

전남도는 중국인 관광객을 오는 2018년 33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계층별·연령별 타

3대 중점 과제 18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대부분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기성 전세기와 저비용항공사 유치, 무안국제공항의 중국 관광객 불편사항 개선,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투자 유치 등이 대표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이날 전남도 국감에서 “올 한해 중국 관광객이 72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남은 16만3000명으로 예상돼 전국의 2.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국경질 연휴를 맞아 21만명의 중국 관광객이 찾은 서울 명동과 제주를 중국 특수를 누리는데, 전남은 겨우 1000명이 온 것으로 안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LS산전 등 10개 기업과

1676억원 규모 투자 협약 체결

에너지밸리 구축사업 탄력

광주시는 6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LS산전(주), 세방산업(주) 등 총 10개 기업과 투자액 1676억원, 고용 394명을 창출하는 내용의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S산전(주)은 남구 대촌동에 들어설 도시첨단산업단지(1단계)로 대용량 ESS(에너지저장장치), 태양광PCS(전력변환장치) 시험 및 실증센터를 설립한다. 또 2단계로 전압형 HVDC(직류송전 시스템) 및 DC(직류)기기 시험 및 실증센터 구축을 위해 600억원을 투자해 1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ESS(에너지저장장치)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는 대호전기(주) 등 2개사가 315억원, 전자부품분야에는 (주)준테크 등 2개사 76억원, 의료기기 제작회사인 (주)티디엠이 65억원, 광학부품회사인 엠피닉스(주)가 30억원, 자동화설비분야인 (주)제일이 36억원, 자동차부품회사인 (주)태경이 30억원 등 총 552억원의 투자를 한다.

윤정현 광주시장은 “에너지 분야 대규모 투자가 결정됨에 따라 ‘광주 에너지밸리 구축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고 광산업과 의료산업 등 관련기업의 유치로 지역경제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노동정책 기본계획 현장 목소리 담는다

노동단체·전문가 참여 토론회

광주시가 광주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광주시는 7일 시청 무등홀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단체, 경영단체, 전문가, 시민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서울시 노동정책을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 노동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김상봉 사회통합지원센터장의 진행으로 지정 토론자 6명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으로 진행됐다.

지정 토론자는 임택 광주시의원, 강조병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진흥부장(경영계), 윤영현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경영계), 최정열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상임부부장(노동계), 박영수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부부장(노동계), 손동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 광주전남본부장(노동계) 등이 참여한다.

주진우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광주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과 광주시가 준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보다 활성화돼 있는 노사민정협의회 등 거버넌스가 활발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박병규 시 사회통합지원센터장은 “노동정책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의미있는 ‘광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 나가고 광주시는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U대회 조직위가 지난 5일 대만 타이베이 스타디움에서 진행중인 ‘2015광주U대회 디브리핑 회의’에서 타이페이 U대회 관계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광주U대회 성공 노하우 대만에 전수

김윤석 조직위 사무총장 등 타이페이서 ‘U대회 디브리핑 회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가 차기 개최지인 대만 타이페이에서 성공 개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최하는 ‘2015광주U대회 디브리핑(debriefing, 임무수행 결과보고) 회의’에 참가한 광주U대회 조직위는 2017 U대회 개최지인 대만 타이페이와 유니버시아드 운영 경험, 지식 등을 공유한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대만 타이페이 스타디움에서 광주U대회의 성공적 개최 경험을 차기U대회 개최도시에 전달한다. 디브리핑 회의는 유니

버시아드를 주최하는 FISU의 지식승계 프로그램으로, 이전 대회의 경험과 노하우를 차기 대회를 준비하는 조직위에 전수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주최의 공식 국제 회의이다. 회의에는 FISU, 광주U대회 조직위, 2017타이페이하계U대회 조직위, 2017알마티동계U대회 조직위, 광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FISU와 대만 타이페이 조직위는 광주U대회 조직위에 안전, 마케팅, 개폐막식, 입장권, 문화행사, 경기운영, FISU 패밀리 서비스, 방송 및 미디어, 기획, 의무도

등 17개 분야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을 요청했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오는 201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를 앞둔 타이페이 조직위원회에 대해 준비부터 개최까지 전 분야에 걸쳐 현장 실무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한다.

대만이 종합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타이페이 조직위는 FISU와 외신으로부터 호평 속에 성공적 개최를 거둔 광주U대회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유치 이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U대회 기간 동안에도 타이페이에서는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해 대회 조직위 주요 책임자들이 광주를 배우기 위해 다녀갔고, 마켓스트리트에 타이페이U대회 홍보관을 열어 차기 대회를 적극 알리기도 했다.

타이페이 조직위는 경기운영 외에도 전문 분야인 방송 및 미디어와 1만3000명의 선수단에게 편의를 제공한 선수촌 운영 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FISU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의 하계U대회를 성공을 넘어 전설로 세계무대에 선보인 광주U대회 조직위에 폭넓은 자료를 주문했다.

김윤석 조직위 사무총장은 “성공적 국제대회 롤 모델이 된 광주U대회가 실무 경험,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성공개최의 유산을 다시 한 번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공동주택 600가구 미만엔 자치구서 건축 심의

광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고시

앞으로 공동주택이 21층을 넘더라도 600가구 미만이면 자치구에서 건축심의

를 받는다. 광주시는 공동주택 심의 대상 완화 등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21층 이상이면 600가구 이상 단지는 여전히 시에서 심의를 받는다. 하지만 개정 조례에 따라 층수에 관계없이 600가구 미만이면 자치구 심의 대상이다. 일반 건축물은 21층 이상이나 전체 면적 합계 10만㎡ 이상이면 시 건축심의

를 받는다.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행정부 시장이 당연직이었으나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이나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20명 이상으로 구성했던 건축위원회는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확대했으며 부시장은 당연직에서 제외됐다. 현재 광주시 건축위원회는 3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3명만 주택, 교통, 안전 등 관련 공무원이다.

건축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 절차는 건축주가 신청하던 것을 건축사와의 유착관계 개선을 위해 허가권자(행정기관)가 건축사회에 지정, 요청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라식 vs 라섹

라식 수술

각막결편을 만들고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통증이 적고 시력회복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라섹 수술

각막 상피를 벗긴 후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라식에 비해 통증이 다소 있고 시력회복 속도가 느리지만 충격과 안구건조증에 강한 수술 방법입니다

◎ 사람의 눈은 손가락의 지문처럼 모두 같지 않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눈에 맞는 다양한 수술이 가능한 시력교정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백원안과**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수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